

만 3세 유아의 언어 기반 내·외집단에 대한 도움 행동 기대와 평가

Received: January 17, 2026
Revised: February 19, 2026
Accepted: February 19, 2026

교신저자: 진경선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3

E-MAIL:
kjin@sungshin.ac.kr

최선아¹, 진경선²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¹,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²

Three-Year-Olds' Expectations and Evaluations of Helping Behavior Based on Language Group Membership

Sunah Choi¹, Kyong-sun Jin²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²

* 이 논문은 2024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A2A03038376).



© Copyright 202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는 만 3세 한국 유아가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타인의 도움 행동을 어떻게 기대하고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유아들은 네 명의 동양인 여성 중 두 명은 한국어, 다른 두 명은 일본어를 사용하는 영상을 시청하였다. 이후 조건에 따라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두 여성(내집단 조건: 한국어-한국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여성(외집단 조건: 한국어-일본어 또는 일본어-한국어)의 상호작용이 제시되었다. 이때, 한 여성이 도구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아들은 다른 한 여성이 이 여성을 얼마나 도울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외집단 조건보다 내집단 조건의 유아들은 도움 행동을 더 높게 기대하였다. 이후, 실제 도움 제공 가능자가 언어 내집단 혹은 외집단 구성원을 돕거나 무시하는 결과를 제시받았을 때,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도움 행동을 긍정적으로, 무시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언어 내집단 구성원의 무시 행동을 외집단 구성원의 무시 행동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만 3세 유아가 화자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단서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차별적인 기대와 평가를 형성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 언어 기반 집단 인식, 내집단 지지, 도움 행동, 무시 행동, 사회인지

우리는 타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 누가 어떤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집단 내 및 집단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Balliet et al., 2014; Roberts et al., 2017). 예를 들어, 우리는 가족, 이웃, 혹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며, 고통에 빠졌을 때 위로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과학 분야의 여러 학자들은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예측이 인간의 도덕 인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사회 원리 중 ‘내집단 지지(ingroup support)’ 원리에 기반한다고 제안하였다(Brewer, 1999; Graham et al., 2013; Rai & Fiske, 2011; Shweder et al., 1997; Tajfel et al., 1971; Tooby et al., 2006). 즉, 인간은 진화의 역사 속에서 집단을 이루어 협력함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높여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집단 내 구성원은 서로를 돌보고 친사회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사회·도덕적 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발달심리학의 선행 연구들은 어린 영유아들도 다른 사람들이 내집단 구성원을 친사회적으로 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예, Bian et al., 2018; Jin & Baillargeon, 2017; Olson & Spelke, 2008; Richter et al., 2016; Rhodes, 2012; Ting et al., 2019; Ting et al., 2020). 이러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집단 단서를 사용하였다. 첫째, 최소 집단(minimal group) 단서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등장인물의 옷차림, 장신구, 혹은 소속 집단 이름과 같은 임의적이고 명시적인 단서를 통해 집단 소속 정보를 제시한 후, 아동들이 같은 집단 혹은 다른 집단 구성원을 어떻게 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를 살펴보았다(예, Chalik & Rhodes, 2018; Dunham et al., 2011;

Richter et al., 2016; Rhodes, 2012). 최소 집단이란, 성별, 인종, 언어, 친족 관계와 같이 개인의 일상 경험 속에서 이미 의미와 정서적 유대가 형성된 자연 집단과 달리, 실험 상황에서 임의적 기준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한다(Tajfel et al., 1971). 이러한 최소 집단은 구성원 간의 실제 상호작용 경험이나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자연 집단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Rhodes(2012)의 연구에서 연구자는 아동에게 모두 동일한 빨간 티셔츠를 입은 인물들, 그리고 모두 동일한 파란 티셔츠를 입은 인물들의 그림을 제시하며, “여기 두 집단이 있어. 이건 빨간 집단이야. 이 사람들은 Flurps(영어에서 뜻이 없는 단어의 복수형)야. 이건 파란 집단이야. 이 사람들은 Zazzes(영어에서 뜻이 없는 단어의 복수형)야.”와 같이 아동들에게 명시적으로 등장인물의 소속 집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아동들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는 집단에 대해서도 집단 기반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집단 추론의 추상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일상에서 아동들이 어떠한 단서를 기반으로 집단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내집단 상호작용을 추론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자연 집단 단서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성별(Dunham et al., 2011), 혹은 형제, 친구, 낯선 사람과 같은 관계 단서(Olson & Spelke, 2008)를 제시하여, 아동들이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내집단 또는 외집단 구성원을 어떻게 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회적 범주 내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를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별이나 친족, 관계와 같은 단서는 시각적으로 쉽

게 식별 가능하거나, 아동의 기존 경험 및 정서적 유대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아동의 추론이 집단 소속 그 자체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친밀성이나 경험적 학습에 기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언어는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는 강력하면서도 비교적 추상적인 단서로 작용한다 (Gluszek & Dovidio 2010a, b; Kinzler et al., 2007, for a review see Kinzler, 2021). 특히 언어는 인종이나 성별과 달리 고정적인 생물학적 범주가 아니며, 시각적으로도 즉각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는 단서이다. 따라서 사용 언어를 기반으로 한 내집단 지지 추론에 대한 연구는, 명시적 집단명이나 고정적 사회 범주, 그리고 기존의 친밀한 관계적 경험 없이도 아동이 미묘한 사회적 정보를 바탕으로 집단을 범주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유아들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단서로 소속 집단을 인식하고,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기대와 평가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발달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를 주로 도움, 나눔, 위로 행동으로 구분하여 연구해 왔다(예, Dunfield, 2014; Eisenberg, 2006; Sohail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 중에서도 타인의 목표 달성을 돕는 도구적 도움(instrumental assistance) 행동에 대한 유아의 기대와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예, Jin & Baillargeon, 2017; Warneken & Tomasello, 2006).

이하에서는 발달 초기 영유아의 언어 기반 집단 범주화에 관한 선행 연구와 만 3세 전후 유아들의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도움 행동 기대를 다룬 연구들을 개관하고자 한다.

발달 초기 사회적 단서로서의 언어

신생아 시기부터 인간은 언어적 차이를 구분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생후 수일 이내에 영아들은 임신 중 노출되었던 모국어를 듣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여러 실험적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어머니를 둔 신생아는 외국어인 러시아어보다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들을 때 더 높은 빨기 반응을 보였으며(Mehler et al., 1988), 영어 또는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듣는 신생아들 역시 각각 영어 또는 스페인어 자극에 대해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Moon et al., 1993).

이 시기의 신생아들은 아직 언어 자극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 구분 능력은 의미적 차이가 아니라, 각 언어가 지니는 리듬적 특성에 근거한다(Nazzi et al., 1998, 2000). 언어는 리듬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예, Bertinetto, 1989; Bloch, 1950). 첫째, 각 음절이 비교적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발음되는 음절 박자(syllable-timed) 언어로, 한국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음절보다 작은 단위인 모라(mora)를 기준으로 리듬이 형성되는 모라 박자(mora-timed) 언어로, 일본어가 대표적이다. 셋째, 말의 강세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박자가 형성되는 강세 박자(stress-timed) 언어로, 영어, 러시아어, 네덜란드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리듬적 차이를 바탕으로, 어린 영아들은 두 언어가 충분히 다른 리듬 유형에 속할 경우, 친숙하지 않은 언어일지라도 서로 다른 언어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듣는

신생아는 강세 박자의 영어와 모라 박자의 일본어를 구별할 수 있었으나, 동일한 강세 박자에 속하는 영어와 네덜란드어는 구별하지 못하였다(Nazzi et al., 1998).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 구분 능력은 점차 정교해진다. 생후 약 5개월경이 되면, 영어를 모국어로 듣는 영아들은 영어와 네덜란드어, 더 나아가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까지도 구별할 수 있게 되지만, 노출 경험이 없는 두 개의 유사한 언어(예: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는 여전히 구별하지 못한다(Nazzi et al., 2000). 이러한 결과는 영아들이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을 지닌 채 태어나며, 이 민감성이 생후 첫째 동안 경험하는 언어 입력을 바탕으로 점차 조율됨을 시사한다.

이처럼 발달 초기의 언어 구분 능력은 이후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사회적 집단을 구분하는 단서로 활용하는 기반이 된다. 실제로 영유아들은 자신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선호한다. 예를 들어, 생후 10개월 영아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화자가 제공한 장난감을 외국어 화자가 제공한 장난감보다 더 선호하였으며(Kinzler et al., 2007), 생후 12개월 영아들 역시 모국어 화자가 제공한 음식을 외국어 화자가 제공한 음식보다 더 선호하였다(Kinzler et al., 2012; Shutts et al., 2009). 이러한 선호는 단순히 친숙한 언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넘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선호와 그 사람의 선택을 따르려는 경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언어 기반 선호는 이후 아동기에도 지속된다. 예를 들어, 만 5세 아동들은 실제 파트너 선택 과제에서 사용 언어를 고려하여, 자신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또래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선택하였다(Kinzler et al., 2007). 요약하면, 언어는 발달 초기부터 사회적 집단을 구분하는 핵심 단서로

기능하며, 동일한 언어 사용자에 대한 선호는 영아기부터 아동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아동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집단(예: 자신의 모국어 사용자)에 대한 선호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언어 기반 집단 인식이 제3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로까지 확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어 왔다.

유아의 내집단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

유아의 내집단에 대한 도움 행동 기대의 선행 연구는 크게 최소 집단 단서를 사용한 연구와 자연 단서를 사용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최소 집단 단서를 사용한 연구의 결과, 만 1.5세 경부터 유아들은 실험 상황에서 임의적이고 명시적으로 집단 단서가 주어질 경우 사람들이 내집단 구성원을 도울 것을 기대한다(Jin & Baillargeon, 2017; Ting et al., 2019). 예를 들어, Jin과 Baillargeon(2017)의 연구에서는 기대 위반 과제(violation-of-expectation task)를 통해 17개월 유아들이 도움이 필요한 내집단 구성원을 도울 것을 기대함을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는 먼저 친숙화 단계에서 유아들은 세 명의 실험자가 등장하여 무의미 단어로 자신의 소속 집단을 소개하는 장면을 관찰하였다. 이 중 두 명은 동일한 최소 집단에, 한 명은 다른 최소 집단에 속하였다(예: 실험자 1, "I'm a Bem!"; 실험자 2, "I'm a Bem, too!"; 실험자 3, "I'm a Tig!"). 검사 단계에서 실험자 3이 장면을 떠난 뒤, 실험자 1이 너무 멀리 떨어진 퍼즐 조각을 잡으려다 잡지 못하고 무대를 떠났다. 이후 유아들은 실험자 1과 같은 집단에 속한 실험자 2가 그 퍼즐 조각을 실험자 1 근처에 옮겨주어 도와주는 장면(도움 장면)보다, 그 퍼즐 조각을 들

었다가 다시 원래 위치에 내려놓는 장면(무시 장면)을 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러한 응시 시간의 차이는 유아들이 실험자 2가 퍼즐 조각을 실험자 1 가까이로 옮겨줄 것을 기대함을 시사한다. 반면, 두 실험자가 서로 다른 무의미 단어로 자신의 집단을 소개했을 경우(예: 실험자 1, “I’m a Bem!”; 실험자 2, “I’m a Tig!”; 실험자 3, “I’m a Tig, too!”), 유아들은 도움 장면과 무시 장면에서 응시 시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만 1.5세 유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집단 구성원을 도울 것을 기대하여 내집단 구성원을 돕지 않는 무시 행동은 기대 위반으로 여기는 반면, 외집단 구성원을 돕거나 돕지 않는 행동은 모두 수용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임을 시사한다.

연령이 더 높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보고되었다. 만 3세 유아들은 자신이 직접 최소 집단에 할당되었을 때, 자신의 내집단 구성원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선호하였으며(Richter et al., 2016), 만 2~4세 아동들 역시 제한된 자원을 외집단보다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많이 분배하였다(Lee et al., 2018).

유아들이 직접 집단에 속하지 않고 두 최소 집단을 관찰한 연구에서도, 아동들은 집단 소속에 따라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였다. Rhodes (2012)에 따르면, 만 3세 유아들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내집단 구성원보다는 외집단 구성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론하였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만 3세 아동들에게 빨간 옷을 입은 Flurp 집단과 파란 옷을 입은 Zaz 집단을 소개한 뒤, 둘 중 한 집단 구성원의 부정적인 행동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추론하도록 하였다(예: “Who did a Flurp say could not help build a block tower? (Flurp가

블록 타워 쌓는 것을 도울 수 없다고 누구에게 말했을까?)”). 그 결과, 유아들은 이 행동의 대상으로 내집단 구성원(예, Flurp)보다는 외집단 구성원(예, Zaz)을 선택하였다.

자연 집단 단서를 사용한 연구들은 유아들이 친족 관계나 친밀성과 같은 일상적인 사회적 범주를 기반으로 내집단 지지 기대를 형성함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만 3세 아동들은 타인이 낯선 사람보다는 그의 형제자매나 친구에게 더 많은 자원을 나누어 줄 것을 기대하였다(Olson & Spelke, 2008). 언어 단서를 사용한 연구의 경우, Liberman 등(2017)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9개월 영아들이 두 영어 사용자 간에는 서로 마주 보며 웃을 것을 기대하였고, 영어 사용자와 스페인어 사용자 간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냉담할 것을 기대함을 밝혔다. 만 3세 유아들 또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강한 도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Rhodes & Chalik, 2013). 예를 들어, Rhodes와 Chalik(2013)의 연구에서 만 3세 유아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Flurp’이 같은 영어 사용자인 다른 ‘Flurp’을 해치는 행동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Zaz’를 해치는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언어를 집단 단서로 사용한 선행 연구들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언어가 집단 단서로 사용된 연구(Rhodes & Chalik, 2013)에서는 사용 언어 외에도 명시적 집단 이름(예: “Flurp”, “Zaz”)이 함께 제시되어, 언어 그 자체가 집단 범주화에 기반한 내집단 지지 기대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내집단 지지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Jin & Baillargeon, 2017; Rhodes, 2012)은 주로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아동이 해당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내집단 지지가 단순한 선호를 넘어 도덕적 의무로 인식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움 행동뿐 아니라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언어 관련 연구들은 주로 영어권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한국 문화권에서 언어 기반 집단 인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명시적인 집단 이름과 같은 단서 없이, 언어를 집단 단서로 제시하여, 오직 사용 언어(한국어 vs. 일본어)만으로 유아들이 집단을 범주화하고 내집단 도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유아의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행동(무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내집단 지지 원리가 긍정적 행동의 기대와 부정적 행동의 평가라는 두 측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셋째,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 아동들이 언어 기반 집단 인식과 내집단 지지 기대를 보이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발달 초기부터 영아들은 사용 언어를 사회적 집단을 구분하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으며(예, Kinzler et al., 2007), 만 1.5세 영아들 또한 최소 집단 단서를 바탕으로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도움 행동을 기대함이 응시 시간 과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Jin & Baillargeon, 2017). 그러나 이 시기의 영아들은 주로 응시 시간과 같은 비언어적 지표를

통해 기대를 추론할 수 있으며, 타인의 행동에 대해 명시적인 도덕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제한이 있다. 만 3세는 내집단과 외집단 간 상호작용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과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이른 연령대로,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도움 제공 및 무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함께 측정할 수 있다(예, Olson & Spelke, 2008; Rhodes & Chalik, 2013; Richter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 기반 집단 인식과 내집단 지지 원리가 기대와 평가라는 두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동시에 검증하기에 적절한 연령인 만 3세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만 3세 유아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내집단 화자 간의 도움 행동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간의 도움 행동보다 더 높게 기대하고, 내집단 구성원을 무시하는 행동을 외집단 구성원을 무시하는 행동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만 3세 유아에게 한국어 화자와 일본어 화자를 제시한 뒤, 동일 언어 사용 화자 쌍 또는 상이 언어 사용 화자 쌍의 상호작용 장면을 관찰하게 하였다. 이후 유아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를 보고하고, 도움 또는 무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만약 유아들이 타인의 사용 언어를 통해 집단 소속을 인식하고, 언어를 기반으로 내집단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면, 유아들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내집단 화자 간의 도움 행동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간의 도움 행동보다 더 높게 기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앞서 Liberman 등(2017)의 연구에서 9개월 영아들이 외집단 간 상호작용(스페인어-스페인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기대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만 3세 유아들은 자신과 무관한 외집단 구성원들(일본어-일본어)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내집단 지지 원리를 적용하여 도움 행동을 기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도덕적 평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한 경우에는 내집단과 외집단 조건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집단보다 내집단 상황에서 해당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유아들은 동일 언어 사용 화자 쌍(한국어-한국어, 일본어-일본어)과 상이 언어 사용 화자 쌍(한국어-일본어, 일본어-한국어) 간 도움 행동 기대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유아들은 동일 언어 사용 화자 쌍(한국어-한국어, 일본어-일본어)과 상이 언어 사용 화자 쌍(한국어-일본어, 일본어-한국어) 간 도움 행동 및 무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차이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총 74명의 만 3세 유아가 참여하였으나, 보호자가 연구 도중 개입하거나($n = 2$), 주의가 분산되거나($n = 5$), 혹은 응답하지 않은 경우($n = 3$)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4명(평균 연령 = 3.63세, 표준 편차 = 0.19세, 연령 범위 = 3.27-3.98세, 남아 30명, 여아 3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유아들은 집단 조건(내집단, 외집단) 그리고 도움 행동 여부(도움, 무시)의 2×2 집단 간 설계의 네 조합 중 한 조합에 무선 할당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G*Power 3.1을 사용하여 사후 민감도 분석(sensitivity pow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집단 조건(내집단, 외집단) $\times$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한국어, 일본어)의 2×2 집단 간 분산분석 설계에서, 전체 표본 크기 64명, 유의수준 $\alpha = .05$ 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 설계는 중간 수준 이상의 효과크기(Cohen's $f = 0.43$)를 80%의 검정력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 모집은 연구실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승인번호: SSWUIRB-2024-020).

연구 자극 및 절차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연구실 또는 조용한 공간에서 연구자가 노트북을 통해 영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거나($n = 26$),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연구자가 온라인 화상 플랫폼(Zoom)의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 자극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다($n = 38$).

연구 시작 전, 모든 유아는 제시되는 자극의 음향이 잘 들리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연구 자극을 제시하였고, 유아들은 영상을 시청한 뒤 연구자의 질문에 구두로 답하거나 손가락으로 가리켜 응답하였다. 아동은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혼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양육자가 근처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단, 연구 중 양육자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최소화하였다.

언어 집단 소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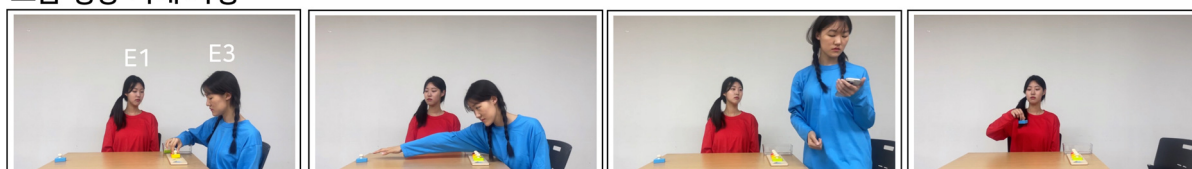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먼저 언어 집단 소개 영상을 세 편 시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개의 언어 집단이 소개되었다. 각 영상은 네 명(E1, E2, E3, E4)의 동양인 여성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좌우로 나란히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다(그림 1). 네 여성은 각각 다른 색의 옷(예: 빨강, 보라, 파랑, 초록)을 입고 서로 다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앞에 있는 탁자 위에는 사과, 책, 신발이 놓여 있었다. 영상에서 여성들은 좌측 또는 우측에

서부터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동일한 물체(예: 사과)를 집어 들고, 세 문장을 사용해 소개하였다(예: “이건 사과야. 이건 맛있는 사과야. 이건 사과야.”). 네 여성 중 두 명(예, E1, E3)은 한국어로, 나머지 두 명(예, E2, E4)은 일본어로 발화하였으며, 두 언어의 제시 순서는 교차 제시되었다. 발화를 마친 후, 화자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세 영상에서는 각각 다른 물체(사과, 책, 신발)가 소개되었다. 언어의 제시 순서(한국어-일본어-한국어-일본어 혹은 일본어-한국어-일본어-한국어)와 첫번째 발화자의 위치(좌, 우)는 유아별로 역균형화되었다.

언어 집단 소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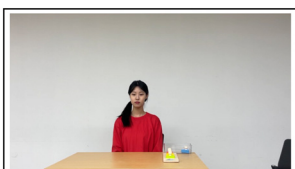


도움 행동 기대 시행



행동 평가 시행

도움 행동



무시 행동



집단 조건에 따라, 도움 행동 기대 시행의 등장인물이 다르게 소개되었으며(내집단 조건: 한국어-한국어 쌍, 일본어-일본어 쌍, 외집단 조건: 한국어-일본어 쌍, 일본어-한국어 쌍), 도움 행동 여부 조건에 따라, 유아들은 도움 행동 혹은 무시 행동을 보았다.

그림 1. 내집단 조건(한국어-한국어 쌍)의 실험 자극 및 절차 예시

도움 행동 기대 시행

이후 연구자는 언어 집단 소개 단계에서 등장한 네 여성 중 두 여성이 상호작용하는 영상을 유아에게 보여주었다. 유아들은 조건에 따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두 화자의 상호작용 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화자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집단 조건($n = 32$)의 유아들은 이전 언어 집단 소개 단계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 두 명의 여성(한국어-한국어 또는 일본어-일본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반면, 외집단 조건($n = 32$)의 유아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 두 명의 여성(한국어-일본어 또는 일본어-한국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각 조건 내에서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한국어 vs. 일본어)는 역균형화(counterbalancing)되었다.

먼저, 내집단 조건의 유아들은 이전 언어 집단 소개 단계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 두 명의 여성(예: 한국어-한국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사용자 쌍)이 긴 테이블 가운데와 오른쪽에 앉아 있는 영상을 시청하였다. 편의상 본 설명에서는 한국어-한국어 화자 쌍을 기준으로 기술한다.

언어 집단 소개 단계에서 등장한 여성 중 한 명(E1)은 오른쪽에 앉은 다른 여성(E3)이 자신의 앞에 놓인 투명한 상자 안에 위치한 네 개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들어 퍼즐 판에 맞추는 모습을 바라보았으며 이때 두 여성 사이에 어떠한 언어적 상호작용도 없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E3에게서 멀리, E1에게는 가까이 놓여 있었다(Jin & Baillargeon, 2017; Warneken & Tomasello, 2014). E3는 다섯 차례 손을 뻗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하였다. E3가 손을 뻗어 조각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중 E3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며, E3는 화면을 바라보며 “어?(또는 あ

れ?)”라고 짧게 외친 후 방을 떠났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통해 E3가 방을 완전히 떠났음을 알렸다. 이후 E1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들어 올렸고, 연구자는 영상을 멈추었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이 사람은 퍼즐을 통에 넣어 도와줄 수도 있고, 퍼즐을 제자리에 두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이 도와줄 것 같아, 아니면 안 도와줄 것 같아?” 이때 화면에는 웃는 얼굴과 찡그린 얼굴이 제시되었으며, 연구자는 각 표정을 손가락(대면 연구)이나 마우스 커서(비대면 연구) 짚어 가리키며(도움: 웃는 얼굴, 돕지 않음: 찡그린 얼굴) 질문하였다(그림 2). 유아들은 먼저 이분 선택 방식으로 도움 제공 여부(도와줄 것 vs. 도와주지 않을 것)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구두로 응답하였다. 이후, 유아의 선택에 따라, 도와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웃는 얼굴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찡그린 얼굴을 제시하였으며, 유아들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구두로 응답하여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응답하였다. 유아의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는 4점 척도(1: 매우 안 도와줄 것 같다, 4: 매우 도와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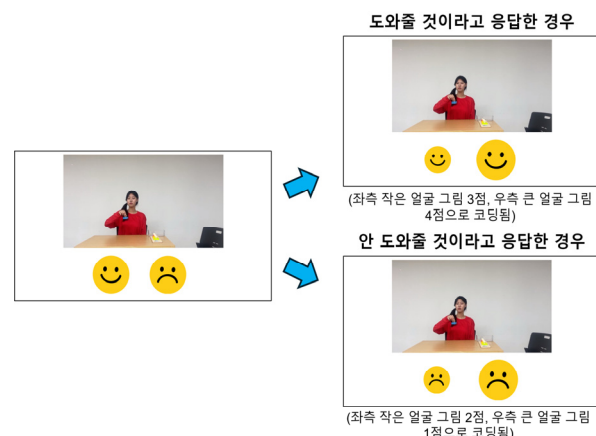


그림 2. 도움 행동 기대 측정 장면 예시

같다)로 기록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유아는 이분 선택 단계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구두로 명확하게 응답(“도와줄 것 같아” 또는 “안 도와줄 것 같아”)하였고, 이후 제시된 크기가 다른 얼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응답의 정도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척도 사용에 혼란을 보이거나 일관되지 않은 응답 패턴을 보인 유아는 없었다.

외집단 조건의 유아들 또한 동일한 절차로 영상을 시청하고 동일한 질문을 받았으나, 영상 속 화자들은 언어 집단 소개 단계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여성들(한국어-일본어 또는 일본어-한국어 사용자 쌍)이었다.

행동 평가 시행

도움 행동 기대 시행 이후, 연구자는 유아들에게 앞서 시청했던 영상의 뒷부분을 이어 재생하였다. 이때 도움 제공 가능자(E2)의 실제 행동은 조건에 따라 미리 할당된 결과(도움 행동 또는 무시 행동)를 유아가 관찰하도록 제시되었다. 즉, 각 유아는 집단 조건(내집단/외집단) × 언어(한국어/일본어) × 도움 여부(도움/무시) 조합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어, 해당 조건의 행동 결과를 관찰한 후 이를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도움 조건에서는 E1이 E3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들어 E3의 투명 통 안에 넣어 손이 닿는 곳에 옮기는 모습이 제시되었다. 영상 시청 후, 연구자는 유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이 사람은 00이가 말한 것과 같이(또는 다르게) 퍼즐을 들어서 통에 넣어주었어. 도와주었네.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어떤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안 괜찮은 것 같아?”. 이때 화면에는 엄지손가락이 올라간 그림과 내려간 그림이 함께 제시되었으며, 연구자는 각 그림을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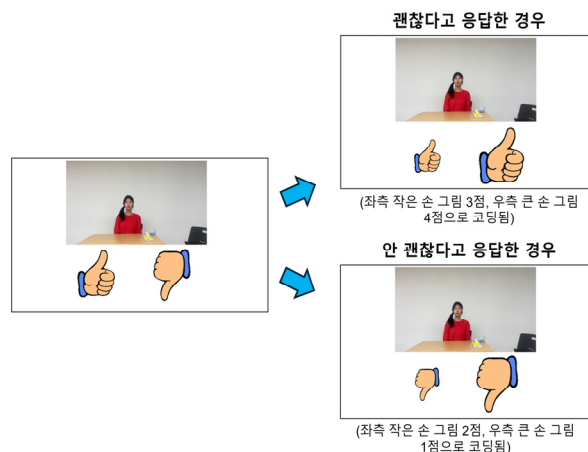


그림 3. 행동 평가 시행 측정 장면 예시

가락(대면 연구) 혹은 마우스 커서(비대면 연구)로 짚어 가리키며(엄지손가락이 올라간 그림: 괜찮은 행동, 엄지손가락이 내려간 그림: 안 괜찮은 행동) 질문하였다(그림 3). 이후, 유아의 선택에 따라, 괜찮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엄지손가락이 올라간 그림을, 안 괜찮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엄지손가락이 내려간 그림을 제시하며,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응답하였다. 아동의 응답은 4점 척도(1: 매우 안 괜찮다, 4: 매우 괜찮다)로 코딩되었다.

무시 행동 장면에서는 E1이 퍼즐 조각을 E3의 손이 닿지 않는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 도와주지 않는 모습이 제시되었다. 영상 시청 후, 연구자는 유아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도덕적 평가를 질문하였으며, 응답 역시 4점 척도로 기록되었다.

결 과

본 분석에 앞서 실험 방법(대면 vs. 비대면)이 주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실험 방

법을 추가 요인으로 포함한 분산분석 결과, 도움 행동 기대와 행동 평가 모두에서 실험 방법의 주효과 및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F_s < 0.15$, $p_s > .70$. 따라서 이후 모든 분석에서는 실험 방법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도움 행동 기대

유아들이 언어 집단에 따라 도움 행동을 차별적으로 기대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유아의 도움 행동 기대 반응(1: 매우 안 도와줄 것 같다, 4: 매우 도와줄 것 같다)을 종속 측정치로, 집단 조건(내집단, 외집단)과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한국어, 일본어)의 2×2 집단 간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F(1, 60) = 4.63$, $p = .036$, $\eta_p^2 = 0.07$ (그림 4). 반면,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F(1, 60) = 0.58$, $p = .449$, $\eta_p^2 = 0.01$, 집단 조건과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 간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60) = 1.01$, $p = .318$, $\eta_p^2 = 0.02$ ¹⁾.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언어 내집단 구성원일 때($M = 3.66$, $SD = 0.70$), 언어 외집단 구성원일 때($M = 3.10$, $SD = 1.25$)보다 도움 행동을 더 높게 기대함을 의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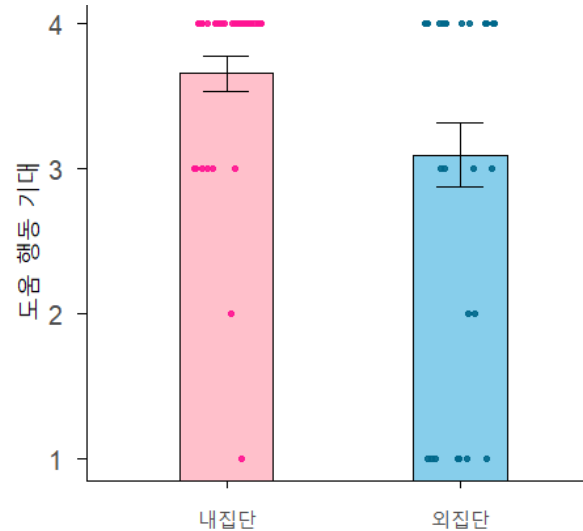


그림 4. 언어 내·외집단에 따른 만 3세 유아의 도움 행동 기대 평균(1 = 매우 안 도와줄 것 같다, 4 = 매우 도와줄 것 같다). 오차 막대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점은 유아의 개별 데이터를 의미함.

며, 이러한 조건 간 차이가 도움 제공 가능자가 한국어를 사용하는지 일본어를 사용하는지와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내집단과 외집단 조건 간 도움 행동 기대 차이에 대한 Mann-Whitney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관찰된 효과의 방향은 분산분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z = -1.704$, $p = .088$.

도움 또는 무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

도움 제공 가능자가 보인 행동(도움 또는 무시)에 대한 유아의 평가(1 = 매우 안 괜찮다, 4 = 매우 괜찮다)를 종속변인으로, 집단 조건(내집단, 외집단),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실제 행동 여부(도움, 무시)의 $2 \times 2 \times 2$ 집단 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움 여부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F(1, 56) =$

1) Shapiro-Wilk 검정 결과, 도움 행동 기대 점수의 분포가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수를 로그 변환하여 동일한 2×2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그 변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원자료 분석과 동일한 패턴의 결과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집단 조건의 주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였으며, $F(1, 60) = 5.21$, $p = .026$, $\eta_p^2 = 0.08$,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의 주효과 및 집단 조건과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_s(1, 60) < 0.83$, $p_s > .36$, $\eta_p^2 <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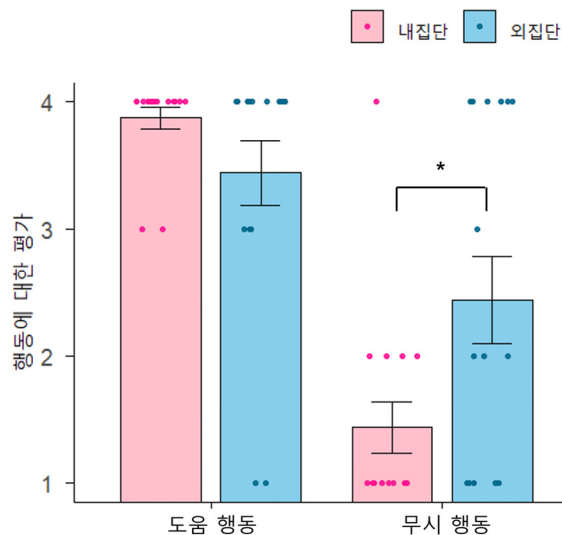


그림 5. 언어 내·외집단 구성원을 향한 도움 행동과 무시 행동에 대한 만 3세 유아의 도덕적 평가의 평균(1 : 매우 안 괜찮다, 4 : 매우 괜찮다). 오차 막대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점은 유아의 개별 데이터를 의미함.

51.56 $p < .001$, $\eta_p^2 = 0.48$ (그림 5). 반면, 집단 조건과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56) < 1.21$, $ps > .27$, $\eta_p^2s < 0.03$. 즉,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도움 행동($M = 3.66$, $SD = 0.79$)을 돕지 않는 무시 행동($M = 1.94$, $SD = 1.22$)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중요하게도 도움 행동 여부와 집단 조건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56) = 8.45$ $p = .005$, $\eta_p^2 = 0.13$. 이는 아동들이 도움 제공자와 수혜자의 언어 집단 관계에 따라 도움 혹은 무시 행동을 다르게 평가함을 시사한다. 이외 다른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F(1, 56) < 1.74$, $ps > .19$, $\eta_p^2s < 0.042$.

2) Shapiro-Wilk 검정 결과, 도움 행동 평가 점수의 분포가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점수를 로그 변환하여 동일한 $2 \times 2 \times 2$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그 변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원자료 분석과 동일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도움 행동 여부별로 내·외집단 조건 간 평가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도움 제공 가능자가 실제로 도왔을 경우, 내집단 조건의 유아($M = 3.88$, $SD = 0.34$)와 외집단 조건의 유아($M = 3.44$, $SD = 1.03$)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30) = 1.62$, $p = .118$, $d = 0.57$. 이러한 결과는 Mann-Whitney 검정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z = -1.36$, $p = .174$.

추가적으로, 각 조건에서 해당 행동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의 중앙값(2.5)을 기준으로 한 보조 분석(일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집단 조건의 유아들($t(15) = 16.10$, $p < .001$)과 외집단 조건 유아들($t(15) = 3.64$, $p = .002$) 모두 척도의 중앙값보다 유의하게 더 긍정적으로 도움 행동을 평가하였다. 즉, 유아들은 언어 내집단과 외집단의 도움 행동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도움 제공 가능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대를 돕지 않았을 경우, 내집단 조건($M = 1.44$, $SD = 0.81$)은 외집단 조건($M = 2.44$, $SD = 1.36$)보다 그 행동을 유의하게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t(30) = -2.52$, $p = .017$, $d = 0.89$. 이 결과는 Mann-Whitney 검정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z = -2.15$, $p = .031$. 척도의 중앙값(2.5)을 기준으로 한 일표본 t 검정 결과, 내집단 조건 유아들

패턴의 결과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도움 여부의 주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였으며, $F(1, 56) = 47.80$, $p < .001$, $\eta_p^2 = 0.46$, 집단 조건과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56) < 1.83$, $ps > .18$, $\eta_p^2s < 0.04$. 또한, 도움 행동 여부와 집단 조건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며, $F(1, 56) = 7.94$, $p = .007$, $\eta_p^2 = 0.12$, 이외 다른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F(1, 56) < 2.29$, $ps > .14$, $\eta_p^2s < 0.04$.

은 무시 행동을 중앙값보다 유의하게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t(15) = -5.22, p < .001$. 반면, 외 집단 조건 유아들의 평가는 중앙값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5) = -.18, p = .857$.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내집단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 그 행동을 외집단 구성원이 돕지 않은 경우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유아들이 언어 집단 내 및 집단 간 상황에서 타인의 도움 행동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실제 도움 혹은 무시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들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언어 내집단 구성원일 때 외집단 구성원일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움을 기대하였다. 또한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도움 행동을 긍정적으로, 무시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특히 내집단 구성원이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 그 행동을 외집단 구성원이 돕지 않은 경우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만 3세 유아들이 언어를 사회적 집단을 구분하는 단서로 활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친사회적 행동을 기대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집단 지지의 원리를 반영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학문적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언어만을 단독 집단 단서로 사용하여 언어 그 자체가 집단 범주화와 내집단 지지 기대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들(예, Rhodes & Chalik, 2013)은 언어와 함께

명시적 집단 레이블(예: “Flurp”, “Zaz”)이나 시각적 단서(예: 옷 색깔)를 함께 제시하여, 언어 단서와 다른 집단 표지가 혼재되어 있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집단 이름이나 집단의 상징색 등 인위적인 단서 없이 오직 사용 언어(한국어 vs. 일본어)만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만 3세 유아들이 언어 차이만으로도 사람들을 서로 다른 집단으로 범주화하고, 이에 따라 집단 내 및 집단 간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대와 평가를 차별적으로 형성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언어가 다른 집단 표지 없이도 독립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범주화 단서로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와 무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통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내집단 지지 원리가 긍정적 행동의 기대와 부정적 행동의 평가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Jin & Baillargeon, 2017; Ting et al., 2019)나 자원 분배(Bian et al., 2018; Lee et al., 2018)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내집단 지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예, 무시 행동) 아동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유아들이 내집단 구성원이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 외집단 구성원이 돕지 않은 경우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보여줌으로써, 내집단 지지가 단순한 선호를 넘어 의무로 인식됨을 실증하였다. 이는 내집단 지지 원리가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도와야 한다는 규범적 기대뿐 아니라, 내집단을 돕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포함함을 시사한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주로 아동과 화자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때, 아동이 동일 언어 화자를 자신과 다른 외국어 화자보다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고해 왔다(Begus et al., 2016; Kinzler et al.,

2007, 2012; Shutts et al., 2009; see also Kinzler, 2021).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확장하여, 아동이 제3자 간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에도 언어를 사회적 집단 단서로 활용함을 보여준다. 즉, 유아들은 언어를 사회적 소속의 지표로 활용하여 화자들 간의 집단적 관계를 추론하고, 이에 따라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실천적 시사점도 제공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유아들이 언어 차이를 집단 경계로 인식하고 내집단에만 도움 행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기대할 경우, 이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또래에 대한 배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유아 교육 현장에서 언어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조기에 시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 사회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 배경 아동의 증가로 인해 유아 교육 기관에서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만약 유아들이 언어 차이를 집단 경계로 인식하고 내집단 구성원에게만 친사회적 행동을 기대한다면, 이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또래에 대한 배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언어나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친사회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협력하고 돕는 이야기나 활동을 통해, 언어 차이가 친사회적 행동의 경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 3세 유아들은 왜 언어 내집단 상황에서 도움 행동을 더 기대하였을까? 하나의 가능성은, 선행 연구에서 최소 집단 패러다임을 사용했을 때 보고된 결과들(예, Chalikh & Rhodes, 2018; Dunham et al., 2011; Rhodes, 2012)과 마찬가지로,

아동들이 내집단 지지 원리에 따라 내집단 내에서 도움 행동을 더 기대하였을 가능성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아동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이 더 발생할 것이라 기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Liberman et al., 2017). 즉, 언어가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작용하여, 언어 내집단 상황에서 도움 행동을 더 기대하게 되었을 수 있다. 이 두 가능성은 경험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고, 실제로 언어 기반 내집단 선호 현상의 본질은 두 요인을 모두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된다.

다만 본 연구는 절차상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대면($n = 26$)과 비대면($n = 38$) 방식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전 분석 결과 실험 방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단일 방식으로 통일하여 방법론적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Jin & Baillargeon, 2017; Ting et al., 2019)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화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다른 화자가 퍼즐 조각을 옮기는 도구적 도움 패러다임을 사용하였다. 비록 일부 맥락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행동이 부적절하게 인식될 수 있으나, 유아들이 도움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이들이 해당 상황을 도움 맥락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도움 상황을 사용하여 본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화자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지 혹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인식했는지를 확인하는 조작 점검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언어를 집단 단서로 인위적으로 부각시켜 유아의 자발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 선택이었다. 그러나 유아의 언어 집단 인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자발적 범주화를 저해하지 않는 비언어적 또는 암묵적 조작 점검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집단 범주화가 어떠한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언어가 실험실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대조되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항상 동일 집단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길에서 여러 명의 한국어 화자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들을 특별히 동일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는 두 언어가 명시적으로 대조되는 상황, 즉 동일한 물체에 대해 서로 다른 언어로 명명하는 맥락에서 특히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상황에 비해 언어 사용의 대조가 덜 명확한 보다 자연스러운 발화 상황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유사한 집단적 기대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언어 경험이 이러한 내집단-외집단 구분과 기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향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어 노출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거나,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아동들은 단일언어 아동에 비해 언어를 사회적 경계로 활용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이중언어 아동이 언어 차이를 사회적 집단 구분의 단서로 사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예, Byers-Heinlein et al., 2017; Howard et al., 2014). 따라서 언어 노출의 다양성과 사용 맥

락이 아동의 언어 내외집단에 따른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발달적 변화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만 3세는 언어적 단서를 직관적으로 사회적 범주화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은 언어 이외의 다른 사회적 단서(예: 국적, 문화, 가치관, 행동 양식 등)를 함께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즉, 초기에는 언어가 사회적 소속을 판단하는 주된 지표로 작동하지만, 이후 발달 과정에서는 언어가 보다 복합적인 사회적 판단 체계 속에서 하나의 요소로 통합될 수 있다. 이러한 발달적 변화를 종단적으로 탐색한다면, 언어가 아동의 사회적 세계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다 포괄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내집단 지지 원리에 따른 동일 언어 사용자 간의 도움 행동에 초점을 두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나눔 행동, 위로 행동 등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 유형에 대해서도 아동들이 동일한 기대와 평가를 보이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언어를 기반으로 한 내집단 지지의 원리가 아동의 사회적 판단과 행동 기대 전반에 걸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Balliet, D., Wu, J., & De Dreu, C. K. (2014). Ingroup favoritism in cooperat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0(6), 1556-1581.
<https://doi.org/10.1037/a0037737>
- Bertinetto, P. M. (1989). Reflections on the dichotomy 'stress' vs. 'syllable-timing'. *Revue de Phonétique Appliquée*, 91-93, 99-130.
- Begus, K., Gliga, T., & Southgate, V. (2016). Infants' preferences for native speakers are associated with an expectation of inform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3(44), 12397-12402.
<https://doi.org/10.1073/pnas.1603261113>
- Bian, L., Sloane, S., & Baillargeon, R. (2018). Infants expect ingroup support to override fairness when resources are limit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5(11), 2705-2710.
<https://doi.org/10.1073/pnas.1719445115>
- Bloch, B. (1950). Studies in colloquial Japanese IV phonemics. *Language*, 26(1), 86-125.
- Brewer, M. B. (1999).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and outgroup hate?. *Journal of Social Issues*, 55(3), 429-444.
- Byers-Heinlein, K., Behrend, D. A., Said, L. M., Girgis, H., & Poulin-Dubois, D. (2017). Monolingual and bilingual children's social preferences for monolingual and bilingual speakers. *Developmental Science*, 20(4), e12392.
<https://doi.org/10.1111/desc.12392>
- Chalik, L., & Rhodes, M. (2018). Learning about social category-based obligations. *Cognitive Development*, 48, 117-124.
<https://doi.org/10.1016/j.cogdev.2018.06.010>
- Dunfield, K. A. (2014). A construct divided: Prosocial behavior as helping, sharing, and comforting subtypes. *Frontiers in Psychology*, 5.
<https://doi.org/10.3389/fpsyg.2014.00958>
- Dunham, Y., Baron, A. S., & Carey, S. (2011). Consequences of "minimal" group affiliation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82(3), 793-811.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1.01577.x>
- Eisenberg, N. (2006). Empathy-related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ur. In S. D. Farrow & P. W. R. Woodruff (Eds.), *Empathy and fairness: Novartis Foundation Symposium* (No. 278, pp. 71-88). John Wiley & Sons.
- Gluszek, A., & Dovidio, J. F. (2010a). Speaking with a nonnative accent: Perceptions of bias,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d belonging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9(2), 224-234.

- <https://doi.org/10.1177/0261927x09359590>
Gluszek, A., & Dovidio, J. F. (2010b). The way they speak: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stigma of nonnative accents in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4(2), 214-237.
- <https://doi.org/10.1177/1088868309359288>
Graham, J., Haidt, J., Koleva, S., Motyl, M., Iyer, R., Wojcik, S. P., & Ditto, P. H. (2013). Moral foundations theory: The pragmatic validity of moral pluralism.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 55-130. Academic Press.
- Howard, L. H., Carrazza, C., & Woodward, A. L. (2014). Neighborhood linguistic diversity predicts infants' social learning. *Cognition*, 133(2), 474-479.
<https://doi.org/10.1016/j.cognition.2014.08.002>
- Jin, K., & Baillargeon, R. (2017). Infants possess an abstract expectation of ingroup suppor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4(31), 8199-8204.
<https://doi.org/10.1073/pnas.1706286114>
- Kinzler, K. D., Dupoux, E., & Spelke, E. S. (2007). The native language of social cogni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4(30), 12577-12580.
- Kinzler, K. D., Dupoux, E., & Spelke, E. S. (2012). 'Native' objects and collaborators: Infants' object choices and acts of giving reflect favor for native over foreign speaker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3(1), 67-81.
- Kinzler, K. D. (2021). Language as a social cu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72(1), 241-264.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010418-103034>
- Lee, K. J. J., Esposito, G., & Setoh, P. (2018). Preschoolers favor their ingroup when resources are limited. *Frontiers in Psychology*, 9, 1752.
<https://doi.org/10.3389/fpsyg.2018.01752>
- Liberman, Z., Woodward, A. L., & Kinzler, K. D. (2017). Preverbal infants infer third-party social relationships based on language. *Cognitive Science*, 41, 622-634.
<https://doi.org/10.1111/cogs.12403>
- Nazzi, T., Bertoncini, J., & Mehler, J. (1998). Language discrimination by newborns: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rhythm.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24(3), 756.
- Nazzi, T., Jusczyk, P. W., & Johnson, E. K. (2000). Language discrimination by English-learning 5-month-olds: Effects of rhythm and familiarity.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3(1), 1-19.
- Mehler, J., Jusczyk, P., Lambertz, G., Halsted, N., Bertoncini, J., & Amiel-Tison, C. (1988). A precursor of language

- acquisition in young infants. *Cognition*, 29(2), 143-178.
[https://doi.org/10.1016/0010-0277\(88\)90035-2](https://doi.org/10.1016/0010-0277(88)90035-2)
- Moon, C., Cooper, R. P., & Fifer, W. P. (1993). Two-day-olds prefer their native languag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6, 495-500.
- Olson, K. R., & Spelke, E. S. (2008). Foundations of cooperation in young children. *Cognition*, 108(1), 222-231.
<https://doi.org/10.1016/j.cognition.2007.12.003>
- Rai, T. S., & Fiske, A. P. (2011). Moral psychology is relationship regulation: moral motives for unity, hierarchy,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Psychological Review*, 118(1), 57-75.
<https://doi.org/10.1037/a0021867>
- Rhodes, M. (2012). Naive theories of social groups. *Child Development*, 83(6), 1900-1916.
- Rhodes, M., & Chalik, L. (2013). Social categories as markers of intrinsic interpersonal obligations. *Psychological Science*, 24(6), 999-1006.
<https://doi.org/10.1177/0956797612466267>
- Richter, N., Over, H., & Dunham, Y. (2016). The effects of minimal group membership on young preschoolers' social preferences, estimates of similarity, and behavioral attribution. *Collabra*, 2(1), 8.
<http://dx.doi.org/10.1525/collabra.44>
- Roberts, S. O., Williams, A. D., & Gelman, S. A. (2017). Children's and adults' predictions of Black, White, and multiracial children's friendship pattern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8(2), 189-208.
- Shutts, K., Kinzler, K. D., McKee, C. B., & Spelke, E. S. (2009). Social information guides infants' selection of food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0(1-2), 1-17.
- Shweder, R.A., Much, N.C., Mahapatra, M. & Park, L. (1997). The "big three" of morality (autonomy, community, divinity), and the "big three" explanations of suffering. In P. Rozin and A. Brandt(Eds.), *Morality and health*. New York: Routledge.
- Sohail, S., Dunfield, K. A., & Chernyak, N. (2022). Dissociable mechanisms for diverse prosocial behaviors: Counting skills predict sharing behavior, but not instrumental helping.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23(2), 289-303.
<https://doi.org/10.1080/15248372.2021.1998064>
- Tajfel, H., Billig, M. G., Bundy, R. P., & Flament, C. (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149-178.
- Ting, F., He, Z., & Baillargeon, R. (2019). Toddlers and infants expect individuals to refrain from helping an ingroup

victim's aggresso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6(13), 6025-6034.

<https://doi.org/10.1073/pnas.1817849116>

Ting, F., Dawkins, M. B., Stavans, M., & Baillargeon, R. (2020). Principles and concepTing, F., Buyukozwer Dawkins, M., Stavans, M., & Baillargeon, R. (in press). Principles and concepts in early moral cognition. To appear in J. Decety (Ed.), *The social brai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ambridge, MA: MIT Press.

Tooby, J., Cosmides, L., & Price, M. E. (2006). Cognitive adaptations for n-person exchange: the evolutionary roots of organizational behavior.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27(2-3), 103-129.
<https://doi.org/10.1002/mde.1287>

Warneken, F., & Tomasello, M. (2006). Altruistic helping in human infants and young chimpanzees. *Science*, 311(5765), 1301-1303.
<https://doi.org/10.1126/science.1121448>

Warneken, F., & Tomasello, M. (2014). Extrinsic rewards undermine altruistic tendencies in 20-month-olds. *Motivation Science*, 1(S), 43-48.
<https://doi.org/10.1037/2333-8113.1.S.43>

Three-Year-Olds' Expectations and Evaluations of Helping Behavior Based on Language Group Membership

Sunah Choi¹

Kyong-sun Jin²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²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3-year-old Korean children use shared language as a cue when forming expectations and evaluating others' helping behaviors. Children first watched videos of four Asian women, two of whom spoke Korean and two Japanese. They then observed an interaction between two women who spoke the same language (ingroup condition: Korean-Korean or Japanese-Japanese) or different languages (outgroup condition: Korean-Japanese or Japanese-Korean). When one woman required instrumental assistance, children rated how likely they expected the other to help. Children in the ingroup condition expected higher levels of help than those in the outgroup condition. Next, children observed the potential helper either assisting or ignoring an ingroup or outgroup member in need and then evaluated the behavior. Critically, however, children judged ignoring more negatively when the target was an ingroup member than when the target was an outgroup member. Togethe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by age three, children treat shared language as a socially meaningful marker, using it to generate differentiated expectations about prosocial obligations and to evaluate others' behavior accordingly.

Keywords : language-based group categorization, ingroup support, helping behavior, ignoring behavior, social cognition